

수강신청 및 교과 이수 관련 Q&A

Q1. 2019학번입니다. 이번에 보고서작성및발표, 비판적사고와논증적글쓰기 과목이 폐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중점교양의 기초영역의 이수 학점은 어떻게 이수가 가능할까요?

A1. 2014~2020학번 신입학자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는 기존의 중점교양 영역인 기초, 인성/지혜 구분없이 중점교양 8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중점 교양 교과목은 기존의 중점 교양과목인 인간관계및리더십훈련, 한국사와한국문화, 생활한문, 철학의이해, 고적의이해, 정보문화와현대사회, 과학과기술의역사, 공학과경영 교과목을 수강하시면 중점교양으로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Q2. 2018학번입니다. 2021년부터 일부 중점교양 교과목이 폐지되고 교양 교육과정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중점교양 이수학점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A2. 2014~2020학번 신입학자의 경우, 일부 폐지 예정인 중점교양 교과목(보고서작성및발표, 비판적사고와논증적글쓰기, 관계/차이/공감)을 제외한 기존의 중점교양 교과목들은 개설학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중점교양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기존의 중점교양 교과목인 인간관계및리더십훈련, 한국사와한국문화, 생활한문, 철학의이해, 고적의이해, 정보문화와현대사회, 과학과기술의역사, 공학과경영 교과목을 수강하시면 중점교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균형교양과 중점교양을 혼동하여 균형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면 중점교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잘못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균형교양 교과목이 중점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위에 언급되어 있는 기존의 중점교양 교과목을 이수하셔야 중점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2012학번입니다. 2021년부터 일부 중점교양 교과목이 폐지되고 교양 교육과정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중점교양 이수학점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A3. 2008~2013학번 신입학자의 경우, 2021학년도에 개설되는 기반교양 교과목과 기존의 중점교양 교과목들 인간관계및리더십훈련, 한국사와한국문화, 생활한문, 철학의이해, 고적의이해, 정보문화와현대사회, 과학과기술의역사, 공학과경영 교과목을 수강하시면 중점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균형교양과 중점교양을 혼동하여 균형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면 중점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잘못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균형교양 교과목이 중점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위에 언급되어 있는 기존의 중점교양 교과목을 이수하셔야 중점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2020학번입니다. 이번에 기존의 교양필수 교과목인 교양영어가 모두 폐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교양필수 이수 학점은 어떻게 채울수 있나요?

A4. 2021-1학기부터 개설되는 기반교양의 모든 교과목은 교양필수로 개설되며, 2014~2020학번 신입학자의 경우, 이 교과목들 수강 시, 교양필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 개설되는 기반교양 교과목은 의사소통과기초글쓰기(1,2학기 개설), 인본적사고와공동체의가치(1,2학기 개설), 영어커뮤니케이션(1학기 개설), 영어프리젠테이션(2학기 개설)이 있으며, 반드시 영어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4차산업혁명과소프트웨어, 의사소통과심화글쓰기(가칭)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Q5. 교양필수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기반교양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할 때, 어떤 분반에 수강신청을 해야 될까요?

A5. 2021학년도에 개설되는 기반교양(교양필수) 교과목은 1학년 대상 개설 교과목입니다. 재학생은 대학(공통)으로 개설된 분반에 수강신청을 가능하며, 1학년 수강신청이 모두 완료 된 후 남은 분반별 여석에 대해서,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Q6. 편입생입니다. 이번에 교양교육과정이 개편된다고 들었는데, 편입생의 경우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A6. 편입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교양교과목에 대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습니다.